



Where the 창조적 사물이 탄생하는 곳  
**Creative Things** are!  
[www.kes.org](http://www.kes.org)

# 한국전자전

Korea Electronics Show

10.14 (수) ▶ 17 (토), KINTEX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주관



KEA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문의 02-6388-6062~6 [kes@kes.org](mailto:kes@kes.org)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5  
2015 한국전자산업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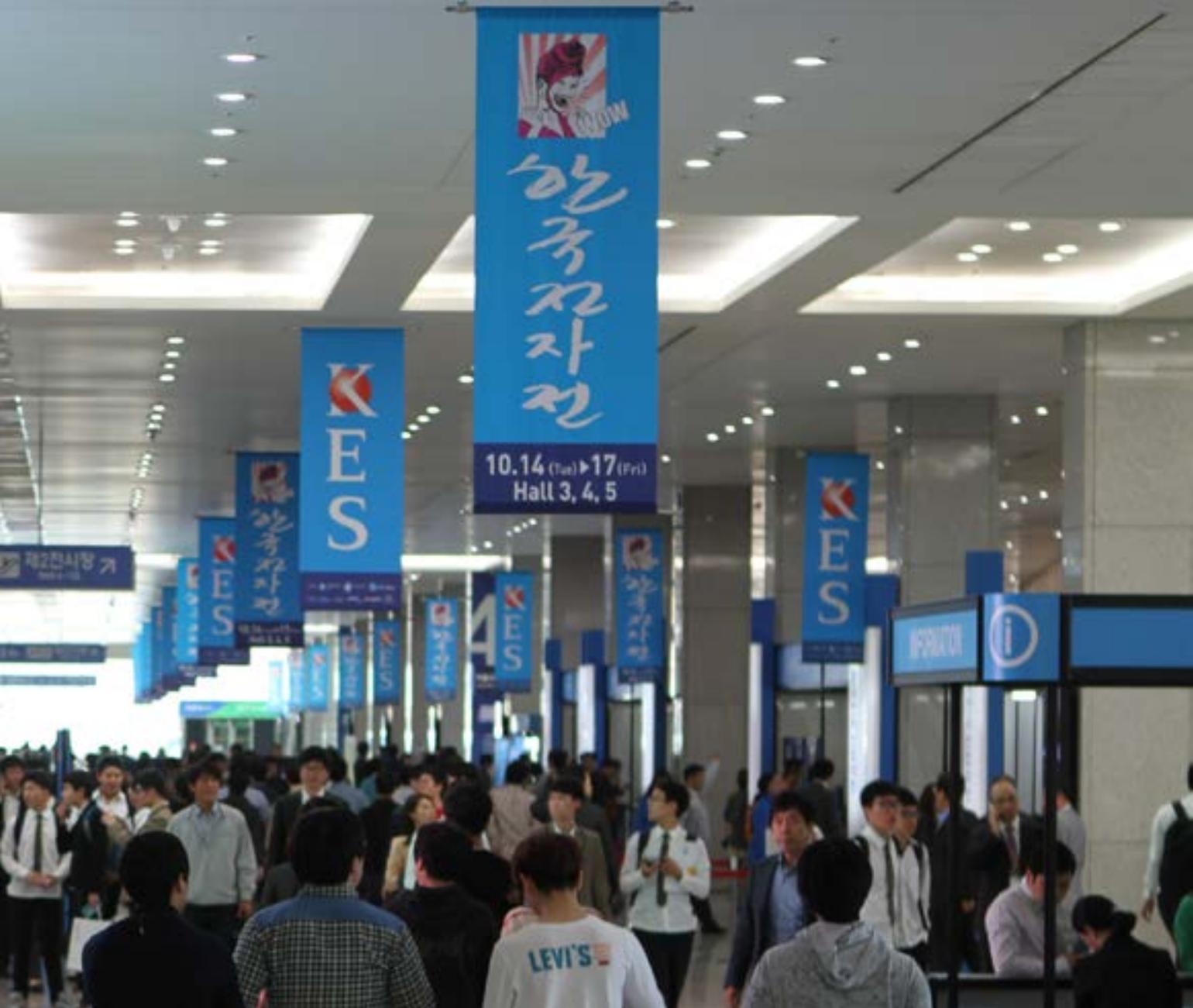
# CONTENTS

## I. 2015년 참가안내

1. 전시회 개요 \_4
2. 참가비 \_5
3. 전시품목 및 전시관 \_6
4. 부대행사 \_7

## II. 2014년 Review

1. 개막식 \_8
2. 갈라쇼 \_12
3. KES Innovation Awards \_14



### III. 2014년 참가업체

1. Samsung \_16
2. LG \_18
3. ICT관 \_20
4. Softwar & Mobile관 \_21
5. Parts & Materials관 \_22
6. Consumer관 \_24
7. 명품생활가전관 \_25
8. 방송음향조명관 \_26
9. IT Convergence관 \_27

10. 대학관(동양미래대학교) \_28
11. 대학관(Techno-Fair관) \_29
12. 명품의료기기관 \_30
13. 3D융합/프린팅관 \_31
14. 지역특성화 공동관 \_32
15. 디스플레이전시회(IMID) \_34
16. 국제반도체대전(i-SEDEX) \_35

### IV. 2014년 개최결과

1. 보도현황 \_37
2. 개최실적 \_38

# Korea Electronics Show 2015

## 전/시/회/개/요

전시회명 제46회 한국전자전 Korea Electronics Show 2015  
 기 간 2015년 10월 14일(수)~17일(토), 4일간  
 장 소 KINTEX 제1전시장(3홀~5홀)  
 규 모 600개사 1,500부스 (국내 400개사 / 해외 200개사)

주 최    
 주 관 

해외협력기관 CEAC, CCPIT, CECC, HQEW(중국), TEEMA(대만), JESA, JMA(일본), HKTDC(홍콩),  
 AEECC(아시아전자전협력회의), Messe Berlin(독일), CEA(미국), RATEK(러시아), CMAI,  
 TEMA(인도), VETA(베트남)

전시분야 Multimedia, ICT, Parts & Materials, Software, Mobile, 3D, Broadcasting,  
 Smart Convergence, Semiconductor, Display



## 참가/신청

신청기한 : 2015년 7월 30일(목)까지

참 가 비				
전시제품 구분		단가/부스(9m <sup>2</sup> )	비고	
국내업체	독립부스		- 국내업체: 부가세 별도 - 독립부스: 면적만 제공 - 조립부스(기본형): 면적+기본장치 제공 - 조립부스(프리미엄): 면적+목공장치 제공	
	조립부스	기본형		240만원
		프리미엄형		280만원
해외업체	독립부스		US\$ 2,600	
	조립부스	기본형	US\$ 3,200	
		프리미엄형	US\$ 3,800	

※ 단, 프리미엄부스는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 전시제품의 제조사가 해외업체일 경우 해외업체의 참가비를 적용.  
 ※ 해외업체 단가를 한화로 입금 시 환율은 입금일의 대외 송금 환율을 기준으로 함.



## 부/스/시/안



▲기본(1부스)



▲기본(2부스)



▲기본(4부스)



▲프리미엄 2부스



▲프리미엄 4부스(블루)



▲프리미엄 4부스(레드)

※ 상기 디자인 및 시공 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참가/비/할/인/혜/택

KEA 유료회원사 할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원가입을 필한 정규회원의 경우 총 참가비 30% 할인 (※ 단, 할인은 6/26(금)까지 참가비 50%이상 납부한, 100인 이내 중소기업에 한함. 중복할인 없음)
조기신청 할인	10%할인: 2015년 3월 27일(금)까지 5% 할인: 2015년 5월 29일(금)까지
VP고객 추가할인	KES 3년 연속 참가 중소기업 대상 5% 추가 할인(2013, 2014, 2015연속 참가)

※ 기한 내 계약금을 납부한 참가업체만 할인 적용, 중복할인은 순차적으로 적용

## 참가/비/납/부

계 약 금      온라인 참가신청 후 15일 이내 50% 납부  
잔      금      8월 13일(목) 까지 납부

참가비 납부 은행 계좌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원화	국민은행	598601-04-001578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 참가 신청시 계약금 50%는 15일 이내 납부하고 기한까지 잔금 납부
- ※ 7월 30일(목) 이후 신청 시 참가비 전액 납부
- ※ 참가비는 반드시 업체명으로 납부
- ※ 송금수수료는 참가업체 부담

## 전/시/품/목



– Electronic Parts & Materials (전자부품, 재료 · 소재 · 장비 등)



– Consumer (멀티미디어, 스마트홈 기기, 중소형 가전, 이미용기기 등)



– ICT (정보통신기기, 통신장비,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기기 등)



– Software & Mobile Apps (솔루션, 플랫폼,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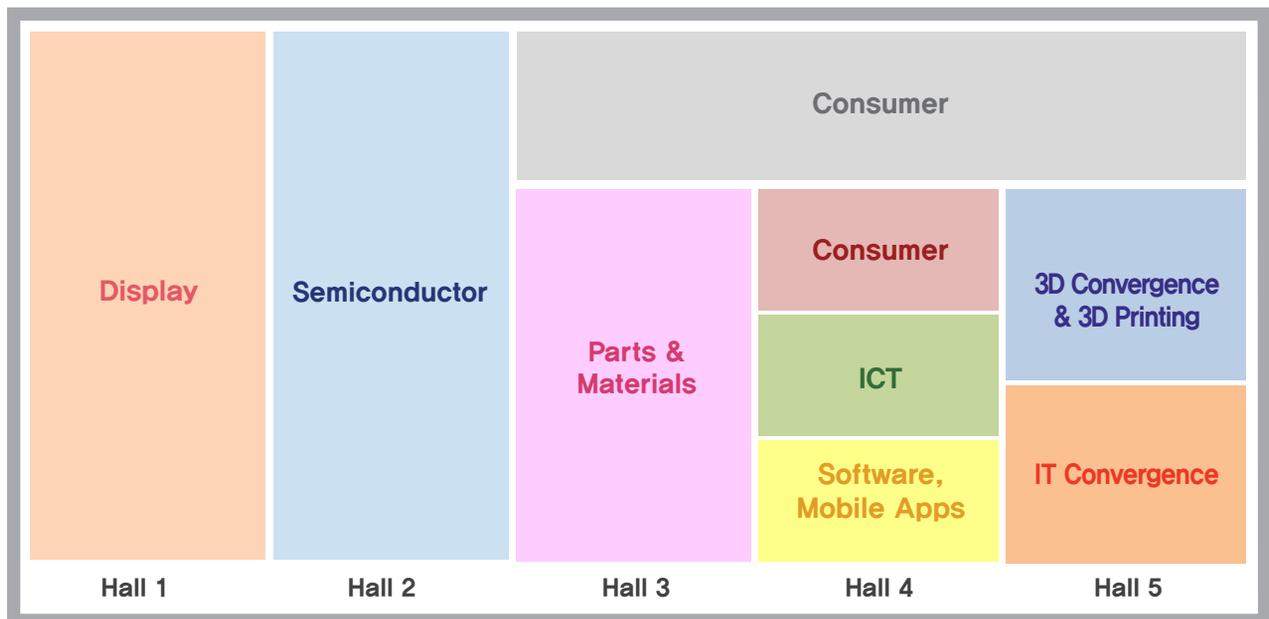


– 3D Convergence & 3D Printing (3D 디스플레이, 콘텐츠 등)



– IT Convergence (자동차, 의료, 스포츠, 헬스 · 뷰티 등)

## Floor Plan



## 참가문의

KES사무국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전시마케팅팀(Exhibition & Marketing Team)

주 소 (121-83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1

TEL 02-6388-6062~7 FAX 02-6388-6069

E-mail kes@kes.org

# 부대행사

## 국내외 초청바이어 비즈매칭

- 유럽, 미국, 중국, 중동 등 20여 개국 바이어 및 국내 대형 유통바이어 초청 비즈매칭

## 제10회 전자·IT의 날 유공자 포상식

- 산업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 제4회 KES Innovation Awards

- KES 참가제품 중 신제품(New), 디자인(Design), 콘텐츠(Contents) 분야 혁신제품 선정 및 시상

## 컨퍼런스/세미나

- 전문기관 글로벌 동향세미나, 제품개발 전략발표회 등

## 경품이벤트(최신 전자·IT 제품 등)





## 첨단기술의 향연, 2014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식

2014년 한국전자산업대전은 권오현 회장의 "지금이 전자·IT 산업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는 인상적인 개회사로 개막을 알리며 국내 최대 전자·IT 산업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권오현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궁근 총장 등 관련 산학연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어, 제9회 전자·IT의 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전자·IT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VIP들은 테이프 커팅에 이어 참가업체를 직접 참관하여 제품을 시연하며 전자업계 트렌드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세계 스마트홈 시장의 개화와 함께 올해 전시회에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마련된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KEA 권오현 회장 개회사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축사



▲사회자 이세진 아나운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엘아이지에이디피(주) 허광호 대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주)뉴옵틱스 정평수 연구소장



▲훈포장을 수상 중인 수상자들



▲전자·IT의 날 훈포장 수상자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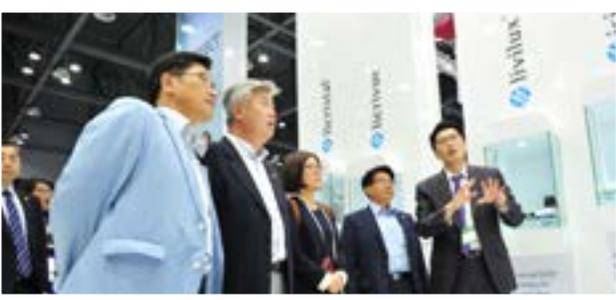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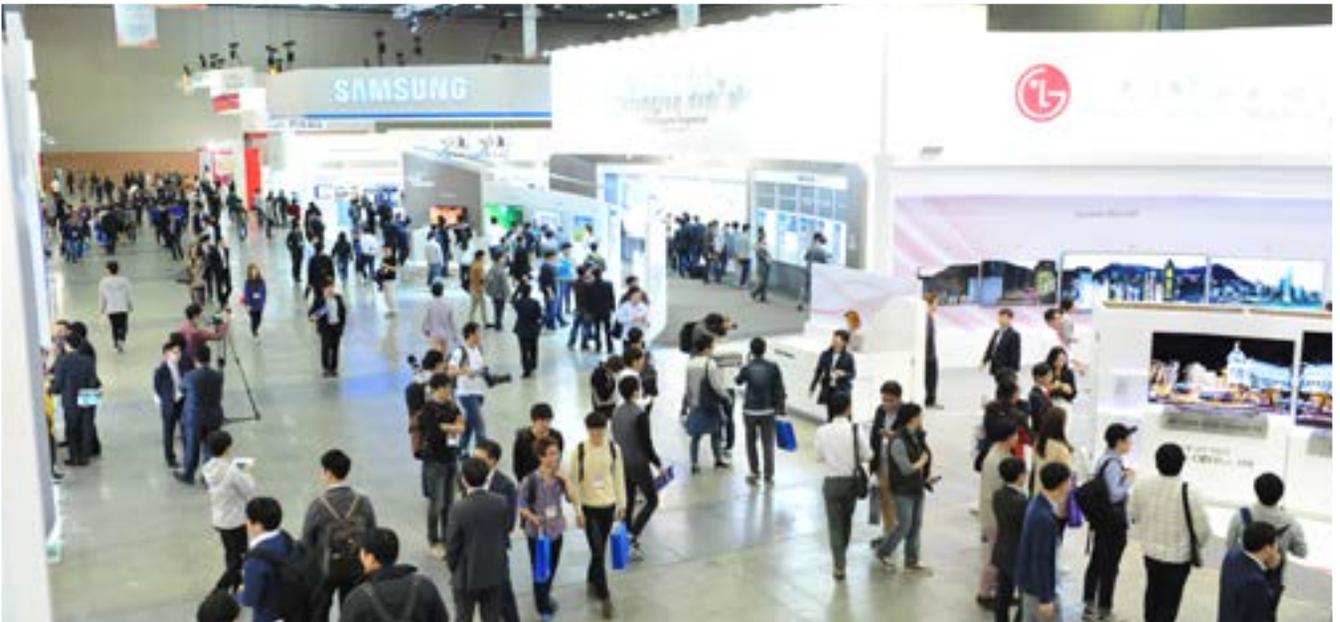
▲전자·IT의 날에 참석한 주요인사



▲LG이노텍 신제품 설명을 듣고 있는 KEA 권오현 회장



▲VIP 투어에 참석한 주요인사들



**혁신 제품, 스마트 기술, 전자·IT 산업 트렌드 엿볼 수 있었던 2014 한국전자산업대전**

전시회의 개막과 더불어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이목을 끌었다. 미래방송장비기술 워크샵, 국제패키징 심포지움, 반도체 환경포럼, 2014 NPR Capacity Building Workshop 등 30여회의 컨퍼런스가 함께 열렸으며 미국, 프랑스, 중국, 중동, 베트남, 인도, 일본 등 20개국 300여명 바이어와 수출상담회가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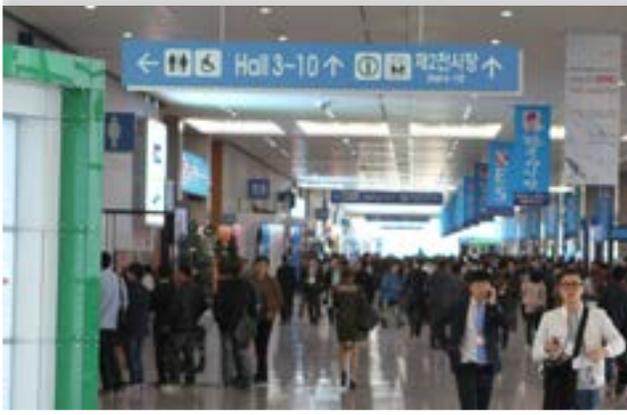
이번에 첫 출사표를 던진 방송콘텐츠, 장비, 기술 시연 관련 IT 및 방송 기술이 전시된 방송음향조명관(Broadcast Tech Korea 2014)도 눈에 띄었다. 방송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방송기술 분야 이슈 및 최근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래 방송장비 기술 워크샵도 함께 열려 국내 방송음향기기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기조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한 눈에 전망할 수 있었던 소프트웨어관에는 'The Best 20 Korean Software 2014' 으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술력을 뽐냈으며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밖에 스마트 융합기술 등을 선보인 IT컨버전스관 과 IT와 의료산업이 융합된 제품들이 대거 전시된 '명품의료기기관', 'Techno-Fair 대학관' 등 다채로운 특별관 구성으로 우리나라 ICT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알아보고 미래 성장동력 ICT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나누었다는 평이다.

**온 국민 함께 하는 전자·IT 산업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이번 전시에는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주목받았다. UHD TV, 트롬, G패드, 갤럭시 기어 S 등 누구나 갖고 싶은 삼성전자, LG전자의 최신제품들이 경품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선사됐다. 또한 전시기간 중 참가업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하이원리조트 스키시즌권이 증정되었으며 KES Ladies로 선정된 달사벳의 공연과 국내 최초 트리플 모니터를 구현한 체감형 4축 모션시뮬레이터 '탑 드리프트' 시승행사와 스웱댄스 세계 챔피언 '나잇앤데이'의 공연, 대한민국 대표 모델들과 함께 한 퀴즈쇼 및 포토타임 이벤트, DTS 헤드폰을 집을 수 있는 럭키박스 이벤트까지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관람객들에게 더욱 큰 재미와 흥분거리를 제공했다.





## 보다 화려하고 특별하게, Gala Show 현장

10월 14일 저녁,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는 글로벌 초청바이어와 국내 참가업체간의 네트워킹 시간을 위한 초청만찬 갈라쇼가 개최되었다. 각국의 초청바이어와 참가업체 대표,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갈라쇼는 개그맨 김영철의 진행으로 "KES Ladies" 인 걸그룹 달샤벳의 축하공연과 IT 국악밴드 공연 등과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흥을 준비하여 큰 웃음을 선사하였다.

그리고 올해 출품한 제품중 신제품(Best New Product), 디자인(Best Design), 콘텐츠(Best Content) 3개부문에 삼성전자(세프컬렉션), LG전자(곡면울트라 HD OLED TV) 등 16개사 18개 제품에 대한 2014 KES Innovation Awards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 K 국악 밴드의 오프닝 공연



▲ 걸그룹 달샤벳의 축하 공연



▲ 갈라쇼를 즐기는 참가업체들



▲ 갈라쇼를 즐기는 해외바이어들



▲ 해외바이어들을 사로잡은 상모 돌리기



▲ 글로벌 주(酒)를 통해 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참가국 대표들



▲ 긴배 제의를 하는 (주)산유코리아 대표이사



▲ 개그맨 김영철과 갈라쇼를 즐기는 흥겨운 해외바이어



▲ 갈라쇼 경품 추첨

# KES Innovation Awards

KES Innovation Awards는 참가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측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시상하는 신제품(Best new Product) 부문, 감성적인 매력도와 인체공학적 편의성을 고려한 우수디자인 제품에 시상하는 디자인(Best Design)부문, 창의적 아이디어로 기능 및 콘텐츠 우수 제품에 시상하는 콘텐츠(Best Contents)부문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며, 2014년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16개사 18개 제품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3회 KES Innovation Awards' 제품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 Best New Product



▲삼성전자(주)의 셰프컬렉션



▲LG전자(주)의 곡면울트라HD 올레드 티비



▲HZO Inc.의 HZO증착기



▲(주)스카이미디어의 3D Sky 500



▲한국물렉스의 MicroSD/Micro-SIM 콤보 소켓



▲(주)이송이엠씨의 Thormal Foam Gas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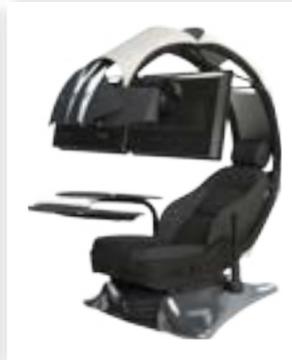
## Best Design



▲삼성전자(주)의 크리스탈-블루세탁기



▲(주)모뉴엘의 클링클링 로봇청소기



▲드로안워크스테이션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설계한 IT가구



▲(주)케이피씨의 미로클린팟



▲(주)동양이자텍의 스팀보이 온수매트



▲(주)대동에프엔디의 드림컵



▲세종하이엔텍(주)의 닥터에어톡북



▲(주)금오전자의 HD네트워크카메라

## Best Content



▲LG전자(주)의 웹OS



▲(주)인비디의 인키즈



▲(주)한국플랜트관리의 방폭형 유무선 데이터로거



▲(주)소소의 브레이노



## 삼성, “소비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삼성전자는 최신 기술을 반영한 제품과 함께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기들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위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선보이는데 주력했다.

삼성전자의 부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국내 최초로 공개된 105형 벤더블 UHD TV였다. 삼성 105형 벤더블 UHD TV는 세계 최대 크기의 곡률을 변경할 수 있는 TV로 화면을 더 세밀하게 나눠 색표현을 강화했고 '크리스탈 블랙 패널'을 적용해 선명도를 향상시켜 TV를 시청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편안한 화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크리에이팅 해피어 홈(Creating Happier Homes)'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담은 생활 가전제품들의 대거 전시도 눈에 띄었으며, 궁극의 신선함을 살린 '셰프컬렉션 냉장고'는 신선한 재료를 위한 셰프 모드, 셰프 바스켓 등 차별화 된 기능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제시했으며 '지펠 푸드 쇼케이스'는 혁신적인 수납 방식과 가족 맞춤형 수납공간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김치 맛을 맛있게 유지하는 '지펠 아삭 M9000', 특허를 받은 2개의 '다이아몬드 필터'로 살균과 보풀을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WA7000전자동 세탁기,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와 기존보다 60배 강력해진 로봇청소기 '파워봇' 등 다양한 제품들과 유럽의 유명 일러스트 작가들이 WW9000' 드럼세탁기와 모션싱크, 파워봇 청소기를 소재로 한 '아트 갤러리' 작품들도 선보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삼성 스마트홈'을 일상 가정과 유사하게 구성해 관람객들의 관람 편의를 도왔다. 도어락과 스마트폰, P 카메라를 연동하여 집 밖에서 집안을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받는 기능인 '세이프티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집안 상황에 대해 안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거실로 꾸며진 전시 공간에는 '영화 모드'를 활용해 TV 영화 감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스마트홈 서비스에 연결된 모든 기기들의 전기 소비량과 예상 비용을 집계해 보기 쉽게 알려주는 삼성전자의 '에너지 매니저' 서비스는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홈에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인 기어 시리즈와 S 보이스를 통해 에어컨, 로봇 청소기와 조명을 편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음성 기기 제어 기능도 체험할 수 있었으며 삼성전자는 보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삼성 스마트홈'에 도입해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진화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언론 및 대중의 이목을 가장 끈 삼성전자의 제품은 역시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노트 엣지였다. 갤럭시 노트 4는 5.7형 쿼드HD(2,560x1,440)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며, 한층 더 진화된 1,600만 고화소 카메라에 스마트 광학식 손떨림방지 기능을 탑재해 뛰어난 촬영 성능이 탑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갤럭시 노트 엣지는 엣지 스크린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게 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 최초로 공개된 105형 벤더블 UHD TV



▲공극의 신선함을 살린 세프컬렉션냉장고



▲일체형 멀티핸들로 편리하게 청소하는 '삼성 모션싱크청소기'



▲혁신적인 갤럭시노트 엣지



▲많은 관람객들이 모인 삼성전자 부스 전경



▲갤럭시 노트4를 체험 중인 관람객들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VR



▲삼성관에 방문한 주요인사들



▲커브드 모니터를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



▲세계 최초 벤더블 UHD TV를 흥미롭게 관람 중인 관람객들



▲갤럭시 노트4를 시연 중인 해외바이어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갤럭시 노트4



# LG, “더 나은 고객의 삶을 위한 혁신”

LG전자는 올해 울트라 올레드 TV, 웹OS 탑재 스마트+ TV, 사용편의성 강화 생활가전 감성 혁신 모바일 기기 등 프리미엄 전략 제품을 전시했다. 전시관 입구에는 울트라 HD 화질의 84형 디스플레이 20대로 초대형 사이니지를 구성했으며 여기에 고객의 일상속에 LG제품이 함께 하는 영상을 상영해 실생활에서 LG전자의 디자인과 편리성, 최고의 화질을 경험하는 모습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출시한 울트라 올레드 TV 를 전면에 내세웠다. 3,300만개의 서브픽셀이 마치 실물을 눈으로 보는 듯한 생생한 화질을 구현해 이를 통해 울트라 HD를 넘어 올레드 TV 시대가 왔음을 LG전자는 선언했다. 웹 OS가 탑재 된 스마트+ TV도 전시해 ‘간편한 사용성’ 을 특징으로 스마트 TV 시장을 재편해 TV 플랫폼의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21:9 곡면 모니터, 울트라 HD 모니터, 일체형 PC 라인업 등 다양한 전략 IT 제품 라인업과 B2B(기업간거래) 고객을 위한 상업용 디스플레이도 전시해 다양한 관람객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은 것은 LG전자의 생활가전 전략 제품들이었으며, 업계 최초 무선 청소기 폴라인업과 공간 효율성을 높인 신개념 의류관리기 '스타일러'의 신모델, 라임 럭셔리 디자인을 적용한 프리미엄 소형가전 패키지인 '고망스 컬렉션' 등 LG전자만의 시장 선도형 제품들을 전시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전 제품과 일상언어로 채팅하는 LG전자의 스마트홈 서비스인 '홈챗(HomeChat)' 을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는 사용자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혹은 '라인' 에 접속 후 'LG 홈챗' 을 등록하면 문자 대화를 통해 스마트 가전제품을 원격제어하고 모니터링하며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몽블랑'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정수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들을 출품해 관람객들이 관심을 끌었다.

LG전자의 모바일 기기는 감성 혁신을 담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가 주를 이뤘다.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된 'LG G워치R' 은 스마트워치로는 세계 최초로 완벽한 원형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으며 풀 서클(Full-circle)디자인을 위해 내부 부품 설계도 최적화했다. 또한 천연 가죽 소재의 스트랩을 적용해 감각적 디자인을 보였다는 평이다.

LG전자는 'G3 비트', 'G3 A' 등 고급형부터 보급형에 이르는 G3 패밀리 라인업과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편의기능이 대거 탑재 된 '와인스마트' 도 함께 선보였으며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웨어러블 키즈밴드인 '키즈온(KiZON)' 을 전시해 웨어러블 기기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뽐냈다.

이밖에도 LG전자의 전시관에는 울트라 HD 화질로 즐기는 3D 게임존, 스티커 인화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엽서를 보내는 이벤트가 진행된 포켓포토 체험 공간 등 관람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을 더욱 즐겁게 했다



생생한 화질을 자랑하는 105형 곡면 울트라 TV



▲세계 최초로 출시된 울트라 울레드 TV



▲국내 최초 공개된 LG G워치R



▲3D TV를 체험하고 있는 참관객들



▲많은 관람객들이 모인 LG전자 부스 전경



▲LG G Pad를 체험 중인 참관객



▲LG전자 모델의 웹 OS 설명을 듣고 있는 참관객들



▲LG G3를 체험 중인 참관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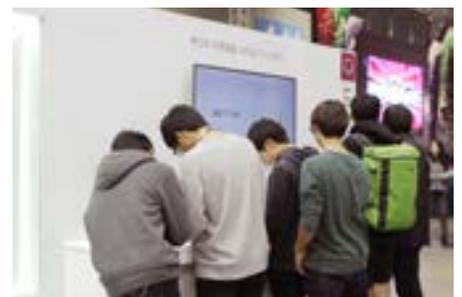
▲LG G워치R을 체험중인 관람객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웨어러블 기기를 흥미롭게 시연 중인 참관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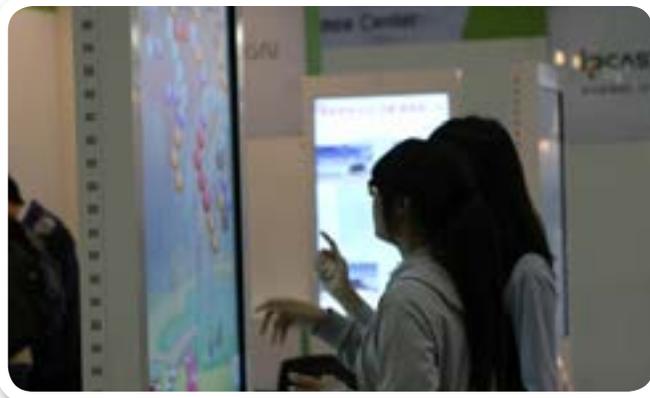


▲LG전자 이벤트에 참여 중인 참관객들

# 체험하며 즐기는 첨단 ICT 세상

이번 전자산업대전은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전시회라는 평이 높았다. 특히 ICT관에서는 우리 실생활에 직접 연관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볼 수 있었다. 3D 실사프린팅, 디지털 믹싱카, 매트릭스 사진체험, 플렉시블&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용홈서비스 로봇, 스마트홈 체험관 등 흥미로운 제품과 새롭고 신기한 기술들이 쏟아진 ICT관은 실생활에 적용되어 대중들에게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느끼게 해 줄 제품과 기술이 돋보이는 관이었으며 ICT기술이 우리 경제 성장에서 분명 빼놓을 수 없는 기술임을 알 수 있었던 자리였다.

기존 스마트폰 화면을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그대로 다양한 어플과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프로모션 및 이벤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쿨사인(주)의 빅스마트폰과 (주)하소인텍의 고속스캐너, (주)다림비전이 시연한 방송국 서비스 등 발전하는 ICT기술이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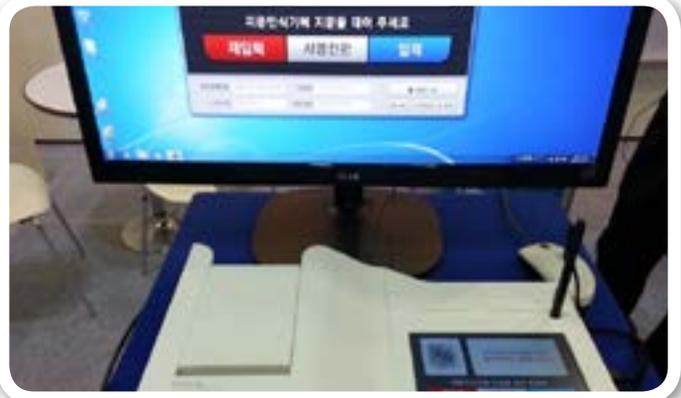
▲쿨사인(주)의 빅스마트폰



▲인사이트파워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간조절스위치



▲(주)아하정보통신의 전자칠판



▲(주)하소인텍의 고속스캐너



▲(주)다림비전의 개인PC 방송국 서비스 시연



▲(주)알엔웨어의 회의, 교육 등 다방면에 사용가능한 무선영상전송장치

# IT산업의 주축, 소프트웨어/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산업은 우리 전자·IT 산업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기조와 함께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모바일은 기술 융복합체의 결정체가 되어 우리 IT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2014 한국전자산업대전에는 '2014 베스트 소프트웨어 20선'으로 선정된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SW업체 20개사가 모인 'The Best 20 Korean Software 2014 특별관'도 처음 공개됐다.

무엇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하는 우리 대표 SW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세계화의 가능성을 지켜볼 수 있었으며 SW&APP 홍보관, 신제품 및 기술발표관, 임베디드 SW 채용박람회, Big Data를 활용한 사례 세미나, SW Innovation Awards, 바이어 상담을 비롯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까지 우리 SW 산업의 현재와 미래, SW 기업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유익한 전시관이었다는 평이다.



▲ ICT/시설물 관제에서 빅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한 3D 지능형 통합관제 솔루션을 전시한 (주)위엠비



▲ 대학생 필수 정보 앱을 출품한 (주)캠핑



▲ 모바일 보안솔루션을 설명하는 엠큐릭스 박현주 대표



▲ 클라우드 ERP 시스템을 선보인 시스템에버(주)



▲ 운동보드와 ICT를 융합한 게임 학습 솔루션을 출품한 (주)케이제이이노베이션



▲ 체험형 솔루션을 탑재한 (주)한영엔지니어링의 4D리더를 체험하는 관람객들



# 전자 · IT 산업의 뿌리를 이루는 부품소재장비관



부품소재관에서 업체 설명을 듣고 있는 참관객

완제품이 열매라면 부품소재는 뿌리이다. 부품 및 소재의 기술력과 이들 하나하나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이 어떤가에 따라 완제품의 완성도가 달라진다.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수많은 바이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데는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전시회에서 가장 많은 부스와 업체 수를 보유했던 부품소재관에는 각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그들의 기술력과 제품을 뽐냈다.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 1,600만 화소 카메라모듈을 선보인 LG이노텍과 초소형, 초고용량 부분에서 세계 최첨단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삼성전기와 같은 대기업들의 기술도 주목할 만했지만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의 기술도 만만치 않았다.

국내 최초로 전력계부문 NEP 인증 획득 및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을 전시한 에이디파워(주), 중국 내 브릿지 다이오드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DY DIODE(덕우무역상사) 등 우수한 부품들이 모여 전자 · IT 축제의 장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또한 산요전기, 제일엠아이, 몰렉스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 참가가 두드러져 참관객 및 해외바이어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최초 1,6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을 전시한 LG이노텍



나노미립 파우더기술을 이용 초소형, 초고용량 부분 세계 최첨단을 출시한 삼성전기(주)



고성능, 고품질, 고신뢰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전시한 산요전기(SanyoDenki)



3차원 공간 터치 기반 문자 입력 기술을 공개한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몰렉스(주)의 MicroSD-SIM 콤보소켓



▲ 산업용 레이저 장비를 생산 및 판매하는 한스레이저



▲세계최대 온라인 유통플랫폼 브로커포럼



▲전력분석계 선도 기업 (주)제일에너지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에 지사를 둔 합류패키징프로드덕트



▲글로벌 기업으로의 명성을 자랑한 MornSun



▲보호 필름 등을 생산하는 KNC



▲남양부문 최고 전문업체 우일에프에이(주)



▲세계 최초 전기가 통하는 유리를 개발한 알모스인터내셔널(주)

# 소비자의 삶을 더 편리하게, Consumer관

최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IT 기술과 융합해 나오는 혁신적인 제품들은 소비자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준다. 이번 전시의 Consumer관에서는 이렇듯 일반 소비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 대거 출시되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드로안워크스테이션 유한회사의 인체공학적 의자는 가구업계와 IT 기술이 만난 신개념 가구로 최적의 컴퓨터 사용 환경을 제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컴퓨터 의자로 기존의 의자와 책상 개념에서 탈피해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최적의 위치에 배치했다. 의자, 테이블, 모니터 거치를 일체화시켜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액션캠 전문업체인 GoPro는 신제품 HERO4를 선보여 기존제품인 HERO3+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퀄리티와 2배 더 향상된 프로세서 프레임을 선보여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주)동양이텍에서 100% 국내 생산으로 제작하는 온수매트 '스팀보이'도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받았으며, 전시장내 스팀보이 온수매트 방식이 설치되어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고음질 다중채널 오디오분야 선구자인 DTS Korea는 한국전자전에서 DTS Headphone:X™ 을 선보였는데, 오디오 제작자가 스튜디오에서 마스터링한 소리 그대로를 헤드폰을 통해 충실히 재생시키며 소리가 머리에서 울리는 느낌이 아니라 일정 거리에 있는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 같은 풍부한 공간감과 사실적인 입체감을 구현해 고품격 멀티 음향 시스템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다시점 무안경 디스플레이를 전시한 스카이미디(주), USB를 통한 소형 공기청정기를 내보인 세종아이엔텍 기술 디자인을 접목한 부유식 가슴기와 아로마 디퓨저를 전시한 케이피씨 등 소비자의 실생활과 관련 깊은 제품들을 출품한 다수의 기업들이 전시관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 전세계/국내 액션캠시장 1위 고프로



▲ 국내 온수매트의 선두주자 (주)동양이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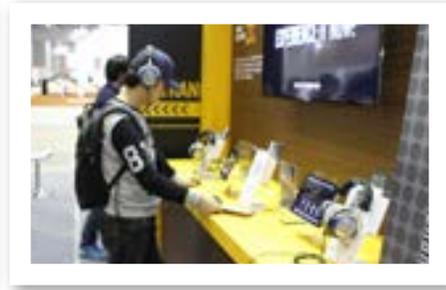
▲ 전세계/국내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시장 1위 (주)플리어시스템



▲ (주)스카이미디어의 최신형 무안경 3D, UHD TV



▲ 많은 관람객들이 체험한 드로안워크스테이션의 IT융합가구



▲ DTS Korea의 제품을 시연 중인 관람객



▲ (주)노틸러스랩의 스타일러스펜 내장 태블릿 PC



▲ 하이브리드 로봇청소기 클링클링의 모뉴엘



▲ (주)니콘이미징코리아의 무빙스튜디오

# 명품생활가전관

명품생활가전관에서는 중소형가전에 관심이 많은 주부 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매력적인 제품들을 관람하게 위해 비빔 발걸음을 멈췄다.

기름요리는 번거롭다는 고정관념을 확 바꿔놓은 (주)대동에프앤디의 '드림콕'은 기름과 냄새없이 직화구이 기능과 스팀오븐 기능으로 양질의 요리를 조리할 수 있어 싱글족과 캠핑족들에게 크게 어필했으며 사운드큐의 LED 발광기능이 담긴 세계 최초 휴대용 기타 연습기도 참신한 제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형가전 경쟁력강화 추진을 목적으로 "2014 BEST 중소형가전 콘테스트"를 개최, 최고 베스트제품 3점, 우수제품 8점을 선정하였는데 그중 베스트제품인 (주)홍일렉코리아의 무선마사지기, 쿠쿠전자(주)의 공기청정제습기, (주)청림아쿠아의 물필터 청소기도 이번 전시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도 살균수기를 출품한 (주)그렌텍, (주)원드엠프의 크로스팬 선풍기 등 국내 생활가전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주)대동에프앤디 드림콕으로 조리된 음식을 맛보는 주요인사



▲(주)홍일렉코리아의 무선 충전식 마사지기



▲친환경 살균시스템을 출품한 (주)그렌텍



▲명품생활가전관에서 제품을 체험 중인 관람객



▲물필터 청소기를 전시한 (주)청림아쿠아

# 최첨단 방송장비기술 선보인 방송음향조명관

방송장비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송음향조명관(Broadcast Tech Korea 2014)은 올해에도 국내를 대표하는 방송장비 제조업체가 참가하여 전시·홍보할 뿐만 아니라, 국산 방송장비 특별관과 방송기술 발표관 등을 구성하여 방송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으며, 유명 걸그룹(달샤벳 등)의 공연도 함께 이루어져 그 어느 해보다 참신한 IT·문화콘텐츠를 보여주었다.

우선 '국산 방송장비 특별관'은 기린정밀공업(주), (주)대경바스컴, (주)센더테크놀로지, 인터엠(주), (주)케빅 등 5개사가 참가하여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무대전문음향, LED 조명 등 화려한 무대를 구성하여 참관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4일간 달샤벳(걸그룹), KATA(퓨전국악밴드) 등이 공연하여 풍성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했다.

'디지털 방송장비 홍보관'은 총 20개사가 참가하여 방송콘텐츠, 장비, 기술관련 전시·홍보하여 우수한 국내제품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며, '방송기술발표관'은 15개 주제로 국내 방송장비산업 현황 및 신제품·신기술 정보를 발표하여 기술트렌드 등을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수요처와 제조업체간 지속적·균형적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장비산업 상생협력 포럼과 아시아지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방송장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가 개최되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국산 방송장비 진출 활성화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관계자 초청 간담회' 등이 동시 개최되는 등 국산 방송장비산업 통합촉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방송음향조명관에 방문한 주요인사들



디지털 앰프, SR 스피커 등을 전시한 인터엠(주)



국내 최초 개발 네트워크 오디오 및 프로오디오 시스템을 출품한 가락전자(주)



국산 방송장비 특별관에서 공연 중인 걸그룹 달샤벳



KES Ladies로 선정된 달샤벳의 K-pop 공연

# 2014년 트렌드는 역시 융합! 컨버전스관 & 산업융합관

2014년 전자·IT 업계의 트렌드는 'Convergence' 라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트렌드에 화답하듯 IT컨버전스관은 많은 참관객들로 북적였으며, 많은 기업들의 참신한 제품들로 기대에 부응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방범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주)금오전자가 최신형 IP네트워크 방범카메라를 출품했으며, 뇌파센서를 이용해 브레인 휘트니스가 가능한 (주)소스 H&C의 '브레이노'는 소프트웨어와 의료가 융합된 제품으로 이번 '2014 KES Innovation Awards'에서 'Best Content'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스타플릿의 전동스쿠터 '나인봇'은 운전자의 무게 중심에 의해 운행되는 미래형 이동 수단으로 이미 유럽, 중국 등에서는 출퇴근용 이동수단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주)파워프라저는 국내 최초 경상용 전기차 피스와 고속전기차 컨셉카 및 관련 부품을 전시했다.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참가한 산업융합관에는 국내 자전거 업체중 유일하게 100만대 생산능력의 자체 공장을 보유한 자전거 전문기업 (주)알투스스포츠가 최신형 전기자전거를 출품했고, 체성분분석기 대표업체인 (주)인바디는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센서와 바닥과의 거리측정 후 신장을 측정하는 인키즈(InKids) 제품을 전시하였다. 이 밖에도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IT기술 선도기업 (주)하이디어솔루션즈 등이 많은 참관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주)스타플릿의 전동스쿠터 나인봇



(주)쓰리디자인아시아의 매트리스 촬영 이벤트



실내외에서도 근거리 위치 측위가 가능한 초소형 특수 단말기를 출품한 (주)케이웍스



세계최초로 책 스독기를 개발한 (주)버트리



국내 최초 경상용 전기차 (주)파워프라저의 PEACE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휴대폰 보조 배터리 등을 전시한 (주)휴밍글로벌



국내 최초 내장형 전기자전거 배터리 특허를 받은 (주)알투스스포츠의 전기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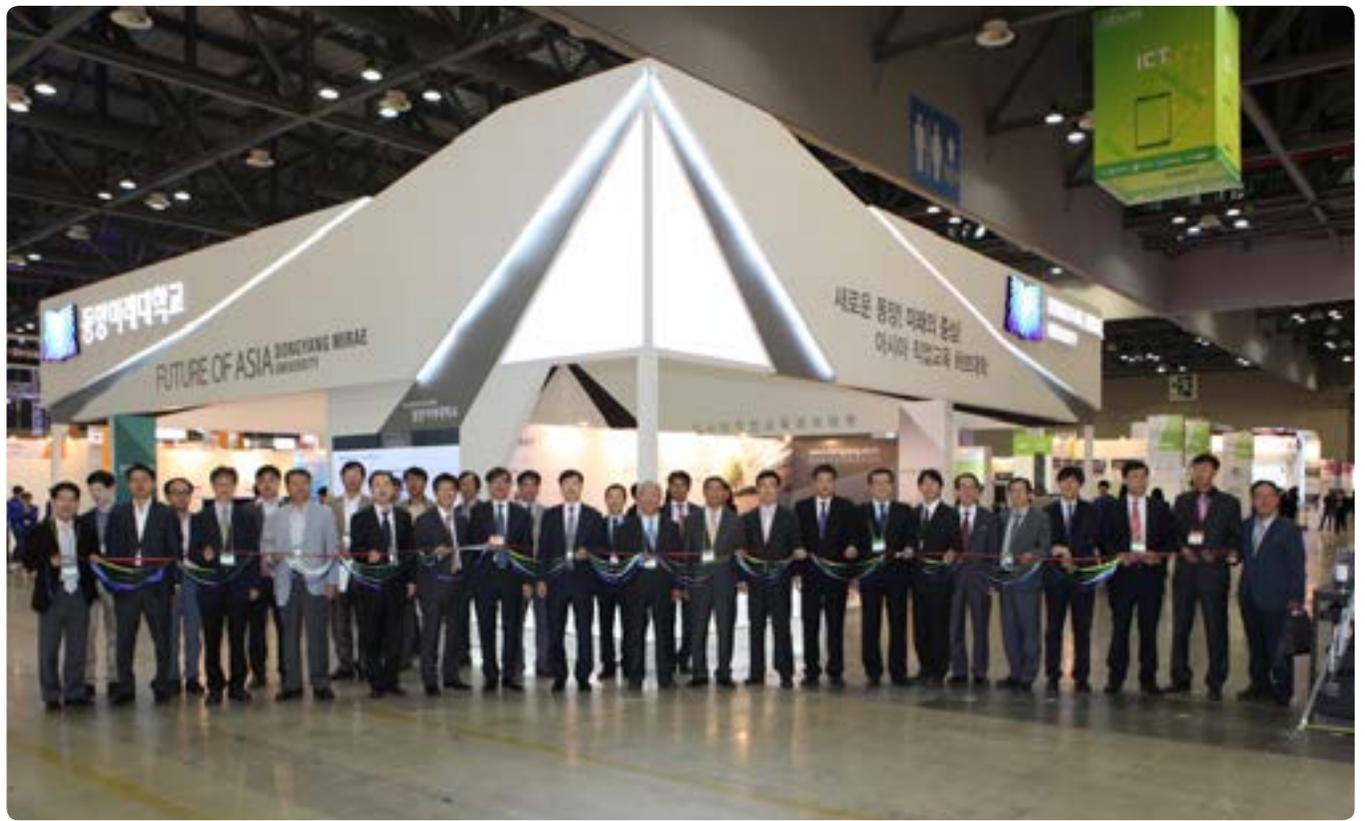


네트워크 및 랜 주변 용품을 선보인 (주)라이트컴

# 아시아 직업교육의 허브, 창의인재발전소 - 동양미래대학교!

미래를 창조하는 대학,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미래를 추구하는 동양미래대학교는 '아시아 직업교육 허브대학'이라는 비전아래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 국제적 교육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교육환경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1년 연속 전시회에 참가하여 ICES MAS 지능형로봇, 스마트카 분야등 우수 전공동아리의 창조적인 작품들을 대거 선보였으며, 또한 졸업작품전시회(Dongyang Mirae Expo)도 동시개최되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 대한민국 전자·IT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모두 모였다. Techno-Fair 대학관

국내 최대 전자·IT 분야 전시회인 2014 한국전자산업대전에는 내로라하는 전국의 이룬을 기반으로 기술 상용화에 나서는 대학들이 모여 Techno-Fair 대학관을 이뤘다. 이들은 전국대학 중에서도 선별된 25개 대학들로 최근에 출원된 미공개 특허기술을 우선 공개하여 산학간의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을 추진코자 참여했다. 각 대학 학생들은 그간 준비한 로봇, 어플리케이션 등을 선보이며 참관객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25개 대학이 지하철 네비게이션 시스템, 진동 촉각 마우스, 실시간 얼굴 인식 장치, 시간-디지털 변환기 등 총 76가지의 올해의 발명작을 출품했다. 산학협력 R&D 대학 스타연구실로는 광운대 홀로디지로그 연구실, 성균관대 설계자동화 연구실 등 7개 연구실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 인제대학교는 자연에너지 중의 하나인 해수의 유동으로 인한 물리적 자극에 의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온성 금속 복합체(IPMC, Ionic Polymer Metal Compiste)기반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로 얻은 에너지를 전송 및 축적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밝혔다. 고려대학교 역시 기존의 쿼티 방식이 아닌 방향을 인식해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인 스마트워치 문자입력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스마트폰에 고정된 자판 대신 방향인식 문자입력 소프트웨어를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보여 눈길을 끌었다. 기술에 대해 글로 보기보다 직접 만지는 체험을 할 수 있고 해당 연구실의 교수 혹은 연구원들이 직접 현장에 참가, 부스에 상주하여 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다고 참관객들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정 회사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앞서워 명확한 타겟팅과 니즈를 반영한 대학의 부스는 더욱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광운대학교가 실용화에 성공한 최초로 대기를 이용한 의료 및 바이오용 '플라즈마 장치'는 피부 미용과 관련한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고려대학교가 내보인 기존의 쿼티 방식이 아닌 방향을 인식해서 문자를 입력하는 '스마트워치 문자입력프로그램'은 LG G워치 R과 같은 스마트워치 출시와 맞물려 참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세종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우리나라 대표 대학들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대학관을 빛나게 했고 이들의 기술은 수요 기업과 연계되어 결과물을 통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미래를 밝게 비쳤다.



인제대학교 LINC 사업단



모션인식 로봇격투게임을 시연 중인 전자전 참가 대학생



많은 기업들의 방문이 있었던 서강대학교



산학협력 R&D 대학 스타연구실로 선정된 성균관대학교 설계자동화 연구실



해우비어와 상담 중인 계명대학교 관계자



광운대학교 전경

# 명품의료기기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기기산업이 큰 폭을 보이며 성장 중에 있다. 이에 이번 전시회는 정부의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목표를 조기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명품의료기기관을 신설하며 국산 명품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적극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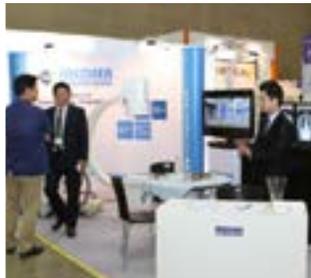
이번에 운영된 명품의료기기관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첨단 국산 의료기기를 탑재한 최신 이동진료버스를 전시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의료계 종사자 3,000여명이 명품으로 평가한 (주)루트로닉의 레이저수술기, 자원메디칼의 전자동혈압계, 대화기기(주)의 인퓨전펌프, (주)메디아나의 환자감시장치 등 23개사 100여개의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국산 명품 의료기기가 전시됐다.

또한 (주)루트로닉, (주)맥아이씨에스 등이 채용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요 대형병원 등에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해 전시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세미나장에서는 한국인 생체데이터포럼, 고령화 시대의 복지 IT, 청소년 및 아동 비만관리 프로젝트, 바이오 및 의료기기 우수기술 설명회가 개최 돼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대한민국 의료 산업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의료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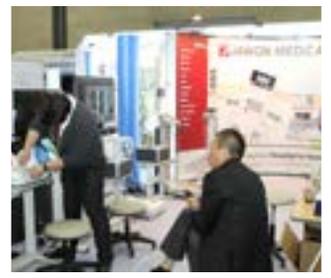
▲(주)루트로닉의 안과용 레이저 의료기기



▲수술용 전용 방사선 의료 장비를 출품한 (주)메디엔인터내셔널



▲국내 최초 자체기술로 개발한 세계 유일의 고유량호흡치료기를 전시한 (주)맥아이씨에스



▲자원메디칼의 전자동혈압계를 체험 중인 관람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 제품을 시연 중인 관람객



▲2014 명품 의료기기로 선정된 제품들



▲명품의료 데이터 기반 건강 체험존



▲악물저동주입기, 전기수술기 등을 전시한 대화기기(주)

# 3D 융합/프린팅관

3D 산업이 영화, 건축, 의료, 콘텐츠 등 타산업과 융합되면서 규모가 커지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3D 프린터 체험존에서는 전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모델링, 출력 등 3D 프린팅을 시연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렸으며 국내 최초 4K UHD 3D 이동형 멀티디스플레이 기반 실감현 교육 서비스 시스템인 (주)쓰리디아이픽처스의 아쿠아리움버스도 관람객들을 즐겁게 했다. 세계 최초 기술인 고선명 3D 극장시스템인 '모컴플렉스'는 획기적인 선명도와 생동감 넘치는 3D 영상으로 미국, 영국,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등 40여개국의 특허까지 획득했으며 VIP들의 발길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했다. 관람객들은 생생한 3D 화면을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며 3D 분야에서 독자적인 노하우를 확보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3D 분야 기술력도 인상 깊었다. 국내 최대 3D 융합 전문 전시회인 World 3D EXPO는 국내외 주요 3D 업체가 참가하는 3D 프린팅 전시와 체험, 세미나부터 해외 전문가 초청 글로벌 3D 기술포럼까지 3D와 3D 프린팅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3D 프린터 주문제작 전문 업체 3D엔터



3D 프린팅 시연 중인 (주)헬스바



3D 프린팅 체험존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관람객들



세계 3D프린팅시장 선두주자 스트라타시스



3D 프린팅 교육의 선두주자 (주)쓰리디아이템즈



Global 3D Tech Forum Symposium 2014 전경



(주)쓰리디아이픽처스의 국내 최초 찾아가는 3D 아쿠아리움 버스



세계 최초 고선명 3D 극장 시스템, 모컴플렉스



3D 프린팅 활용 체험 및 세미나 전경



고양시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안구건조증치료기 누리아이를 출품한 서동메디칼

## 지역특성화 공동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미래 발전가능성과 잠재 기술력을 보유한 지방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동관이 마련되어 산학 협력과 기술이전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지방 중소기업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었다. (1)인천정보산업진흥원, (2)고양지식산업진흥원, (3)부산테크노파크 등으로 구성된 지역특성화 공동관에는 다양한 업체가 함께 자리하며 독자 개발 기술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1) 인천지역 정보통신산업을 지원 육성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관내 소재 우수기업들을 선보인 인천정보산업진흥관에는 CNC 조각기, 레이저마킹기, 3D프린터 전문기업인 보드테크 앤 다비드와 놓치기 쉬운 시사상식을 어플로 개발한 gupcod를 비롯한 유망 기업 10개사가 참여해 참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2) IT/SW, 방송영상 분야 등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주)유민에스티, (주)피케이엘엔이스, 블루소프트 등 10개사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ICT칩판, 누수감지 센서필름, 3D프로젝션맵핑 등 우수기술을 선보였다.

(3)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안구건조증치료기를 개발해 이미 국내의 특허 및 인증까지 완료한 서동메디칼의 누리아리와 정전기 응용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정전기 제거기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선재하이테크 등 9개사가 참여했다.

공동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은 중소기업들의 미공개 기술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전자전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마케팅이 어려웠던 지방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을 산업계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선재하이테크의 정전기 제거장치



온라인 및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M2Block

# 해외기업 참가 확대 및 해외바이어의 방문 줄이어

올해 한국전자산업대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도 국내 전자·IT 산업의 수출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세계 22개국과 협력하여 글로벌 기업/유력바이어를 대거 유치해 한국 전자·IT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였다.

해외기업들의 참가는 전자전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전 세계 16개국에 걸쳐 40개의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15개국에 서 25개의 R&D 센터를 운영 중인 글로벌 커넥터기업 몰렉스도 참가해 기술력을 뽐냈으며 산요전기(주)는 일본 특유 기술의 서버모터, UPS 제품을 전시했다. 매년 50여 부스 규모 공동관으로 구성되어 참가하고 있는 중화권 부품 소재 기업관은 올해에도 그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수한 전자·IT 부품 소싱을 원하는 국내 바이어들을 맞이했다.

해외 바이어들의 방문도 줄을 이었다. 중동 최대 전자소매 유통점 'Sharaf DG' 를 비롯해 전자·IT 제품에 관심이 높은 부유국 중동바이어, 헬스케어 홈 엔터테인먼트 수입 전문 중동 사절단, 러시아 상공사 한국지사 대표, 일본 대기업 구매사절단, 중국 IT 100강 기업바이어, 필리핀 유통전문 사절단, 자원부국과 우수기술 제품을 원하는 동남아시아 바이어 등 20여 개국의 유력 바이어가 전자전을 찾았다. 특히 중국은 통신 분야에서 차이나 텔레콤이, 가전 분야에서는 하이얼, 창흥, 모바일 화웨이 등 바이어 사절단이 전자전을 방문했고 일본에서는 도요타와 파나소닉 등의 바이어가 국내 업체들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들을 만났다.

국내 기업의 세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전자전의 비즈니스 매칭도 눈여겨 볼 만 했다. 국적, 업체명, 직급, 홈페이지, 관심분야, 한국거래실적 등 글로벌 바이어 정보를 온라인에 업로드 해 업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바이어 정보 접근이 가능한 URL 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배포했다. 참가 업체들은 해당 URL 접속을 통한 실시간 바이어매칭 프로그램으로 바이어 정보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으며 전시기간 중 매칭 희망 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실시간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Real-Time Buyer Matching Program)은 바이어와 업체가 1:1 비즈니스 상담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참가 업체와 글로벌 바이어의 효율적인 매칭을 도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번 전시에는 3,000여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석하였으며 그 중 진성바이어 300여명이 국내 업체들과 멀티 비즈매칭을 진행해 18억 달러 상당의 무역거래 상담을 성사할 수 있었다.





## 디스플레이 최고 기술 한 자리에, '2014 IM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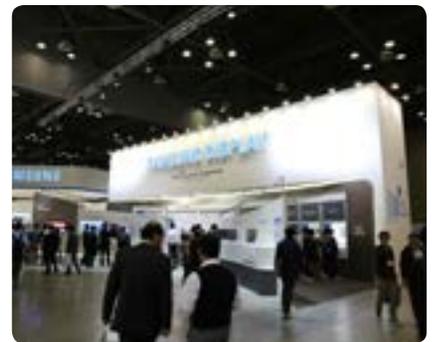
2014 IMID 디스플레이 전시회는 LED, OLED, Flexible, Touch Display 등 디스플레이 패널과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재료 및 장비 등이 전시되었다. 전시 참가업체들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한 1:1 무역상담회도 열렸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디스플레이 업체로 참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곡면 형태 구현을 통해 몰입감과 임장감을 극대화한 고해상도 Curved TV와 모니터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 크기의 Bendable 105인치 UHD TV, 5.7인치 QHD Super AMOLED(2,560X1,440)가 적용된 갤럭시 노트 4, 갤럭시노트엠티 등을 전시했다.

이에 맞서 LG디스플레이는 55"~105" UHD LCD TV 및 65", 77" UHD OLED TV 등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UHD 해상도와 곡면형 디자인 대형LCD TV 및 OLED Line-up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쿼드HD 해상도의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WQHD 모니터, 노트북 PC용 쿼드HD 디스플레이 등 첨단 IT/Mobile 제품들을 전시해 기술력을 뽐냈다.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기술에 강점을 가진 머크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모드에 사용되는 액정의 제품군, 고순도/고신뢰성의 OLED 소재, 액정을 이용한 빠른 채광 조절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window를 위한 기술 등을 선보였다. 또한 Merck Smart Energy Glass Technology (MSEGT), UV광, 폴리머 합성과 배합 기술, 캡슐화 및 S-화확, 신물질 표면, 상 분리, 나노기술, 프로세서와 메모리 칩의 절연 및 반사방지 코팅기술 등으로 낮은 소비전력과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한 집적화 및 메모리 역량 개선을 위한 전자재료 등을 전시하며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했다.

그 외 제 14회 정보디스플레이대상 수상작 전시관, 터치기업의 신제품을 전시하는 '터치관', 디스플레이와 융합 가능한 제품을 선보이는 '스마트 디스플레이관' 등 다양한 테마관을 운영해 일반 관람객이 디스플레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 반도체 부문 대표 전시회 '2014 i-SEDEX'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주관한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제16회 국제반도체대전(Int'l Semiconductor Exhibition, i-SEDEX)에서는 국내외 반도체 기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들은 물론 STMicroelectronics, 알박 등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했다.

한국전자전과 함께 열렸던 i-SEDEX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와 세계 시장 1위에 도전하는 시스템반도체 품목들을 볼 수 있는 반도체 부문 가장 큰 전시회로서 최첨단 반도체 소자, 장비, 재료, Fabless를 포함한 관련 주변기기 등이 전시되었고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3DVNAND, 8Gb LPDDR3 모바일 D램, 10나노급 64Gb MLC 낸드플래시 등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전시를 비롯해 기술세미나와 무역상담회, 채용상담회도 마련되었다. 기술세미나로는 반도체 장비 안전표준 교육, ISMP 등이 열렸으며 채용설명회에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자사의 채용과정과 일정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스템-반도체협력의 날을 정해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시스템 기업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삼성/LG/하이원리조트 경품이벤트 등 체험형 전시, 참관객 발길 잡는데 대성공!

2014 한국전자산업대전은 체험형 전시로 일반 참관객들의 입맛까지 만족시켰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방송음향조명관의 특별전시관에서는 걸그룹 달샤벳을 비롯한 락밴드의 공연이 열려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3D프린팅 및 콘텐츠 체험존, 의로기기체험존, 건강체험존 등의 마련은 참관객들이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 체험하고 참여하는 전시를 경험할 수 있게 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스마트홈 서비스와 같은 체험존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며다. 3D 콘텐츠 체험존의 경우 대기 줄이 100m 가까이 이어질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전시관에 마련된 체험존 뿐만 아니라 참관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었다. UHD TV, 트롬, G패드, 김치냉장고 지펠, 갤럭시 시리즈 등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신 제품을 경품이벤트를 통해 참관객들에게 돌려줬으며 추첨을 통해 참가업체와 참관객을 대상으로 하이원리조트 50만원 상당의 스키시즌권을 제공했다.

이에 발맞춘 업체들의 지원 사격도 대단했다. 모션다바이스는 체험형 4축 모션시뮬레이터로인 탑 드리프트를 설치해 참관객들이 현재 개발 중인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했고 국내 토종 웨어러블 휘트니스 솔루션인 휘트미터는 스완댄스 세계 챔피언인 나잇앤데이를 초대해 참관객들에게 신나는 공연을 선사했다.

세종아이엔텍은 대한민국 대표 모델들을 초청해 참관객들과 모델들이 퀴즈쇼를 하고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DTS Korea는 럭키박스의 비밀번호를 맞추면 DTS Headphone:X™ 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럭키박스 이벤트를 제공해 참관객들을 흥미롭게 했다.



# MEDIA COVERAGE 언론보도

MBC, KBS, SBS의 주요뉴스로 방영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전자신문, 이투데이,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아주경제, 서울경제, 경제 투데이, 뉴스핌, 이코노미리뷰, 이버즈, 경기일보, 산업일보, 머니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아이뉴스24, 환경일보, 비즈니스위치 등 국내 주요 일간지 및 온라인 매체를 비롯하여 REUTERS, Wall Street Journal, Boston Herald, UBERGZMO, China Daily, Today Online, Korea IT Times, YAHOO News, Fox business, Kore World Radio 등 중국, 미국 IT전문매체 등 총 500여회 보도



#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4 개최결과



## | 행사명

2014 『한국전자산업대전』

##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4.10.14(화)~17(금), 10:00~17:00

장소 : KINTEX 제 1전시장 (교양시 일산)

## | 주 제

Worldwide Creative & Comprehensive IT Show(세계적인 창조 IT 종합전시회)

## | 전시규모

면적 : 53,541m<sup>2</sup> (킨텍스 제1전시장 1홀~5홀)

참가업체 : 총 778개사 (국내 591, 해외 187개사)

참관객 : 총 58,162명 (국내 54999, 해외 3,163명)

상담액 : 약 18억 달러

## | 참여국

Korea, China, Japan, Taiwan, Hongkong, Phillipine, Singapore, Vietnam, Malaysia, Indonesia, UAE, Kuwait, Qatar, Saudi Arabia, USA, Canada, Germany, Hungary, France, Serbia, Australia 등

## | 전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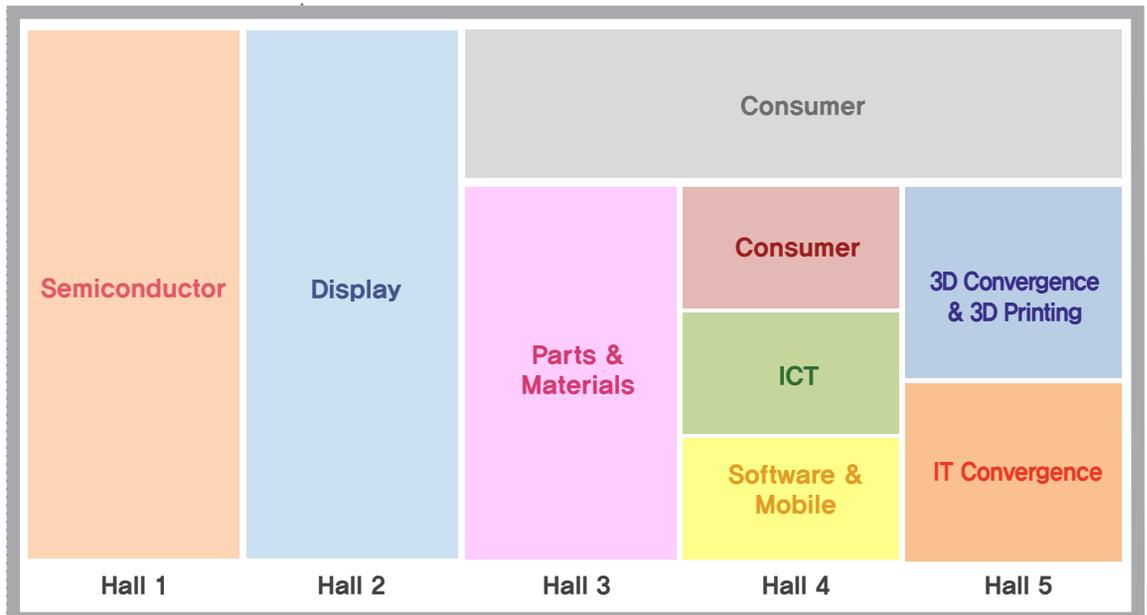
첨단가전, 정보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3D, 방송장비, 의료기기 등

## | 추진 기관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주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 전시관 구성



## | 부대행사

미래방송장비 기술 워크샵  
3D프린팅 산업별 응용 사례  
제3회 한국인 생체데이터 포럼  
3D프린팅 기술과 산업 맞춤형 활용  
고령화시대의 복지IT  
3D프린팅 모델링과 활용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관리 체계구축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방송장비산업 상생협력 포럼  
NTB기술이전설명회-바이오 및 의료기기 분야  
IMD 디스플레이 비즈니스포럼  
전자패키징의 소재/공정 신뢰성  
반도체장비 안전 표준 교육  
반도체 시장동향세미나  
ISMP-IAAC 2014  
반도체 · 디스플레이 환경 · 안전 세미나 등 30여회

## | Biz 상담회

미국, 프랑스, 중국, 중동, 베트남, 인도, 일본 등  
20여개국 글로벌 바이어와 수출상담회

## | 이벤트

전자 · IT의 날 유공자 시상식  
KES Innovation Awards 시상식  
갈라쇼 (글로벌 바이어 초청 만찬)  
매트릭스 사진체험관  
모션디바이스 탑드리프트 체험관  
'KES Ladies 달사벳' 공연  
하이원리조트 경품행사  
참관객 경품행사 등





# 2015 한국전자전 KOREA ELECTRONICS SHOW 2015

